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어찌 의심하느냐?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진리를 판단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행하자.

부활의 진리가
불합리하다고 의심하지 말고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 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게 해야 한다.

새 천년을 맞이한 첫 번째 부활 주일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가
다시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李鍾潤

2000 부활절 메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셨을 때 다시 살아나라 말씀한 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의 부활이 전고 미증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15:20, 22).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진리를 판단하지 말자. 남북이 헤어진 지 반 세기가 넘도록 서로 미워하고 찌르고 죽이는 일만 해오던 우리에게 남북통일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도 통일의 그날이 주어질 것을 굳게 믿고 행하자.

주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께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왜 예수를 죽도록 방치해 두셨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은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내게 불리하거나 이론적 타당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유교도

덕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게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을 한다.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회 즉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부활을 믿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부활의 불안정 때문이었다. 실령 주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실권을 가진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한 제 2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할 터인즉 부활이 고마울 리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누기는 주님이 그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뜻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눅 24:50, 51).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산 가족 상봉, 경제 협력, 남북한 군비 감축 등 의제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간곡히 제안할 의제 중 하나는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공산주의가 잔존한다 해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를 넉넉히 이길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한 첫 번째 부활 주일에 더 이상 의심만 하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가 다시 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굳게 하소서."

2000 부활절 메시지

2000 부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천년의 부활절, 나도 다시 살아나자

최형열(집사, 2교구)

사람들은 새 천년이 된다고 떠들던 마스크의 그 요란한 순간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는 듯이 격앙되었던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요란했느냐 하는 사이에, 지금 온 세상은 엄연히 새 천년의 부활절을 맞고 있다. 새 천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보다 우리에게 더 흥분되고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다 있으나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겐 남다른 부활의 의미가 한가지 있다. 20여 년이 넘게 부친(父親)을 전도했는데 부활절 날 아침 교회에 가지겠다고 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다. 가정의 대 전환점이었다. 이 부활절 날 계란을 이제는 손도 댈 수 없는 곳에 게시지만,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감사를 드렸다.

교회 생활하면서 흥금을 털어 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을 때 가슴 아파 울면서 돌아오길 기도했던 일들도 이 부활절이었다. 이제는 모두 회복되어 감사드린다. 바로 부활의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훗날 나의 관을, 아니면 친구의 관을 그 누구가 먼저 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지낸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이다.

나의 직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이 부활의 내용이 처음이었다. 부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삶은 달걀을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어, 나는 어제 먹었는데...” 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40여 명의 어린이 모두에게 전도했

던 일도 바로 부활의 기쁨이다.

가정의 전도도, 친구의 돌아옴도, 직장의 전도도 이 모든 일이 부활의 의미요 기쁨인데 새 천년 올때 내게 부활의 빅 이벤트는 무엇으로 할까?

그렇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다시 살아나자. 더 많은 열심을 품지 못했던 신앙 생활, 이제는 온 몸을 던져 봉사하자. 주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달려가 보자.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말고 이겨 나가자. 지금의 고통을 사랑과 믿음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극복하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찬송의 힘을 굳게 믿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새 천년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내게 부르짖고 있다.

하심으로서 점점 어두운 절망의 길을 가야만 했던 저희들의 앞길을 영광의 길로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지금부터의 계획도 영원 중의 일 부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너무나 기뻐서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큰 소리로 외쳐 봅니다.

주님께서 해마다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새순이 돋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야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쓰고 없어져 버리면 아까울 것이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 바쳐 충성한 후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쁨 소식을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을 계획합니다

이옥현(권사, 소망부)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봄의 단비에 새순이 돋고 형형 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건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한탄하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어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대로 이생을 끝낸다면 저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

두 번째 기적의 선물

김성철(새가족부)

우리 부부는 1994년 4월에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기질 않아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인술을 통해 아기를 가져보려고 했으나 결과는 늘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고교시절엔 잘 하던 믿을 생활을 대학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저버리고 있던 우리 두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되었고 서울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나 홀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찬식 기도 시간에 참회의 눈물인지 은혜의 눈물인지 온 몸과 마음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원을 우리 발걸음이 교

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 옮긴 즉시 들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지 반년이 지난 1998년 5월에 잉태의 축복을, 음 해인 작년 2월에 새 생명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형준이는 우리 결혼 5년 만 받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아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고자 유아부에서 예배를 드리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형준이로 인해 하나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우리는 서울교회 출석한 지 2년 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여성도들의 사랑과 인도 속에 교회의 일원으로 리잡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런 것인가 봅니 우리 부부는 진리 안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고 소망의 기도 속에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포2·4다락방 식구들과 주 안에서 교제면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배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감격하며 살면서 우세 가족의 믿음 생활은 점점 주님께 더 가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락방 가족 전체가인 가운데 형준이의 돌 잔치를 한 것이 계기가이 그 이후로 다락방 생일예배가 드려지고 있이제 형준이는 다락방 모임에 빠져서는 안될 염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글을 쓰게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두께 선물을 우리 가정이 또 받게 된 것입니다. 리 부부는 내심 형준이의 동생을 바라고는 있지만 워낙 힘들게 첫 아기를 가졌었기 때문에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둘째를 잉태하게 된 리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볼 있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강해지리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을 믿이제는 그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하며 오직 순종만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봉사 활동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형준이와 이제 몇 달 후에어날 둘째 아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로 양육하겠습니다.



부활절 첫 찬양 마리아처럼

박두호(장로, 시온찬양대장)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참 빛과 새 생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하늘이여, 땅이여, 온 누리의 호호음이 있는 자들이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평화의 잔치날의 첫 문을 여는 새벽 찬양을 시온찬양대가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나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놀라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시온찬양대는 정성껏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노래합니다.

우리 시온찬양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잘 훈련된 천군 천사 같은 시온찬양대의 대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단단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 알곡과 같습니다. 평일(수요일) 저녁에 봉사하기에 여건과 상황이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직장도 가정도 뒤로 하고 달려 나오는 그 열정적이고 용감한 발걸음은 주님 주시는 전투적인 성령 충만한 힘인것 같습니다. 용인, 수원, 미아리 등 먼 거리의 대원들은 저녁 시간에 길이 막혀 차 안에서 조바심내며 동동 구르기도 하는 그 모습은 작은 순교같은 믿음의 부요한 충정입니다.

특히 가족 대원이 많아 전 가족이 다 시온찬양 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 대원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대학·청년부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이 다양한 층이지만 정겹고 하나되는 아름다움과 질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합창이며 원숙한 작품입니다. 여기 지휘하시는 강민희 집사님은 넉넉하고 유머러스 하지만 엄격한 열심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감동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영감 있고 탁월한 지휘매너에 연습 시간은 언제 끝났는지 모를 지경으로 기쁨과 환상의 시간입니다.

시온 대원들은 교회 안에서 숨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여기 저기서 소리없지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더 발전하고 부흥하여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당당히 출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신입대원들을 환영합니다.

‘시온’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참 맘으로

홍성주(집사, 스테반회 간사)

만약에 부활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것으로 끝이었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활동이 끝나버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가지고 활동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초능력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을 자제를 염려하고 내 행복 내 영광 내 존귀를 위하여 살면서 무슨 일이 잘 안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늙게 되고 또 늙어가고 있습니다. 풍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늙었느냐는 질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늙어 왔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나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도 흘리시며 죽기까지 희생을 본을 몸소 보여 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라도 갖고 살 수 있다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

새 천년들어 처음 맞는 부활절인 오늘 교회
는 I·II·III부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린다.

예배 중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
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헌금 시간에는 감사 헌금과 그동안 고난
주간 동안 절제하고 금식하여 모은 금식 헌금
을 함께 드리게 된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다채로운부
활절 행사를 진행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

참한다.

찬양 예배 시 '부활절찬양'

찬양 예배시에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로 드린다.

이날 찬양은 모두 10 곡이 연주되며 지휘는
허희철 집사, 반주는 안진희 선생(오르간), 양
경실 선생(피아노)가 맡는다.

연주곡은 다음과 같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
는 아침(이영조 편곡), 이름이 거룩이 여기를
받으시오며(Lee Holdridge 편곡), 이 세상 험

하고(정성덕 편), 놀라운 주의 은혜(Halder
Lillenas 편),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최덕
신), 아름다운 시온(William J. Kirkpatrick),
주님에게 영광(시편108편; 권희석 작, 김진용
편),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Clarance
Dickinson), 천사의 합창(할렐루야; Ludwig
van Beethoven), 아버지의 뜻대로(Michael
Parks) 등이다.

■ 각 부서 소식 ■

유아부 예쁜 사진 콘테스트

유아부에서는 5월 7일(주일) 2층 복도에서
예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유아부에서는 이 콘테스트에 출
품할 사진을 30일(주일)까지 유아부 교사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접수하는 사진은 크기와
모양에 제한이 없는 인화된 것으로 전시가 가
능한 정도면 된다. 내용은 아기들의 귀여운 모
습, 익살스러운 모습, 사랑스럽고 인상에 남을
만한 모습 등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불
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이 콘테스트의 심사 및 평가는 관람하시는
성도들이 직접 전시장에 비치된 스티커를 사
용해 참여하게 된다.

설교 테이프·신앙서적 수집

"집 안에서 쉬고 있는 설교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모읍니다."

새가족부에서는 전도용으로 재활용하기 위

해 우리 교회에서 보급되는 설교 테이프와 신
앙 서적 중 각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모으고 있다.

이는 새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거나 아직 믿
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 테이프와 신앙 서적
을 제공함으로써 영적인 생활로 인도하기 위
한 것이다.

그동안 성도들이 구입하여 듣고 읽고 많은
도움을 얻은 후 더 이상 활용하고 있지 않은
설교 테이프나 신앙 서적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 테이프와 서적의 접수는 교회당 2층
테이프보급실에 하고 있으며 이를 전도에 활
용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새가족부로 문의하
면 제공할 계획이다.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5일(화) 총회주제위원회
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성준·김신영 집사 가정
에서 제공했다.
- * 모세선교회는 24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순례자 칼럼

우주최대사건

인간이 불과 비퀴를 발견한 것, 인쇄술
과 원자폭탄 그리고 컴퓨터와 인공위성을
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
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
간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압도하고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인류
의 첫 조상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
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사
탄의 유혹을 받아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사
망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마다 영
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천지개벽 이
래 인류 최대 사건이다.

■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⑤ 4월 24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한국 사회에 기독교 학교의 자리 매김 (이원철)
- ⑥ 5월 1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교회의 사명(고왕인)

■ 이종윤 목사 방송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재해로 고통받는 동포들과 탈북난민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